

투데이 칼럼

Power 스피치로 성공하자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파워 스피치의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이름은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브라이언트 레이시 등과 우리나라 출신의 진수 테리 등 많은 사람이 있다.

여기서 파워 스피치로 성공을 이룬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한다.

모든 불리한 약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성의 파워스피치 능력이다.

버락 오바마는 덴버에 있는 미식 축구 경기장인 인베스코에서 7만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깊은 감동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주는 환상적인 파워 스피치의 능력으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였다.

그의 순탄치만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쓰라린 경험과 고통, 내적인 갈등, 방황과 고독은 그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만든 모티브가 되었다.

술한 갈등과 고통속에서도 미래를 차근차근 성실하게 준비하여 1996년 일리노이즈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데, 디어 버락 오바마에게 감동적인 파워 스피치를 사용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2004년 전당대회에서 "미국인은 모두 하나다"라는 17분짜리 기초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오바마는 영혼에 감동을 주는 탁월한 파워 스피치의 현란한 스킬을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 연설은 버락 오바마 시대의 본격적인 화려한 축포였고, 이후 천재적인 스피치 능력을 지닌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마틴 루터킹 목사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오바마는 일약스타 정치인이 되었다.

그가 출마를 선언했던 장소는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지난 1868년 "내부가 갈라진 집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라는 명연설로 흑인 노예해방의 정치투

쟁을 시작했던 곳이다. 그의 주무기인 세상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파워스피치로 대선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코커스 당원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를 잡았다.

그의 유세장은 록스타의 공연처럼 "Yes, We Can Believe It"(우리는 변화를 믿어오)의 구호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감동적인 세계 최강의 파워스피치는 언제나 사람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동적인 파워스피치 학습을 통해 한국의 버락 오바마로 화려한 내 모습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

(포춘)지 선정 미국최고의 비즈니스우먼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는 오프라 윈프리를 20세기의 인물로 선정하는 등 세계 최고 토크쇼의 여왕으

로서 전 세계인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녀는 또한 현재 자산 8억달러(한화 8,775억)으로 세계 부자 순위안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여성이며 자선사업가도 너무나 유명하다.

윈프리는 모든 최악의 조건인 흑인에 풍뎡하고 가난하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물이다.

윈프리는 자신이 대중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 사람은 바로 할머니라고 말하며 "할머니께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깨달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강한 자신감을 주셨다."라고 회고했다.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지 않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녀의 놀라운 변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무기인 감동의 파워 스피치이다.

우리 모두 지금에 만족한다거나 불만을 갖지 말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위해 실천하자. 우선 스피치 능력부터 기르고 긍정의 마음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스피치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파워 스피치로서 화려한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사설

삼락농정 성과에 기대가 크다

도내 농가들의 소득이 늘었다는 소식에 기대가 크다. 근래 농업 쪽에서는 밝은 뉴스가 드물었기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내 농가들의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온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탄력을 받았다는 것일 터이다. 그래서 도지사가 예전에 도정 방향을 밝혔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농정 분야와 그 핵심 과정을 말한 것이 다시 생각나는 바이다.

전북도가 농가 소득과 관련하여 밝은 소식을 전해준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터이다. 이번의 밝은 성과를 기회로 전북 농정은 더욱 탄력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도내 농민들이 염원하는 바이다. 우리 전북지역은 지금도 많은 농가가 있기에 농업 분야가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다. 그동안 전북도가 이런저런 농정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는데 그게 주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지금이다.

삼락농정의 목표는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깨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이 바로 그것이다. 삼락농정은 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본보는 전북도의 삼락농정 비전에 반색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있다. 도내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농촌을 찾는 젊은 귀농인이 드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삼락농정' 비전에 계속 충실해야 한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꾸준히 성과가도를 달려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북도는 이제 삼락농정 규모를 키워야 한다. 올해 삼락농정의 성공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한다. 그만큼 전북도의 삼락농정의 목표는 갈 길이 멀다. 이번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다면 전통적인 벼 농사가 줄고 과채류 쪽에 비중이 많이 실렸다는 점일 것이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으므로 농가에 실인되는 쪽으로 과감한 행보를 계속 보여줬으면 하는 바이다.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 서둘러야

올해도 어느새 연말이 코앞이다. 출고 쓸쓸한 이때, 미취업자로 있거나 비정규 직장에 매달려 있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급한 문제인데 무한정 미루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제도화에 대한 공론화가 다시 활발해야겠다. 도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기회가 온다면 전북을 당장 떠나고 싶다는 정서이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은 말만 꺼내 놓고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감은 하는 것 같은 데도 어찌 그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없으니 답답하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진실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예전에 했던 말을 어찌다 생각이 난듯 간헐적으로 되풀이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런 데 지금은 그 간헐적이던 언급조차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도는 먼저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 지방대학을 나온 지역인

재들을 위한 우선 채용에 대한 건의가 중요하기는 해도 그게 언론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해서 하는 주문이다.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보면 지자체들의 지역인재 고용이 여전히 저조하다. 고용 현실이 예전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 차원에서 많이 아쉬운 일이다. 전북도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화와 관련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신규 취직자 태반이 비정규라니 하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도를 서둘러야 한다.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 관심이 커지고 있기에 하는 말인데 지역인재 우선 채용 문제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니다.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전북 지역 전체의 당면 문제이다. 이제 젊은 미취업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식의 발언은 합당치 않다. 전북도에 게 요구하곤 사람은 분명하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법제화를 성취시킬 동력을 스스로 그만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독자제언

과음 다음날 운전도 음주운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즐겁다. 하지만 지나치게 마시는 게 문제다. '다음날 잠을 청하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출근을 한다. 하지만 과음 다음날 아침 운전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아침에도 음주 단속수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운전에도 지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당 0.015%P 씩 떨어진다. 소주 두병 정도를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6시간을 지도 여전히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상태이고, 10시간은 쉬어야 알코올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 잠을 자거나 시간이 지

난 뒤에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소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술을 조금만 마시고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다.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사람의 경우 계속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게 된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보면 예전에 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다. 또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만류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과음 다음날 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술을 조금 마시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진재 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독자제언

상대방 운전자 장님 만드는 불법전조등

심야시간에 도로 상에서 큰 굉음을 내며 운전하거나 멋을 과시하고자 불법 개조를 하고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한 자동차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이 너무 강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 전조등보다 2배나 밝은 불법 HID 전조등으로 인해 건너편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일명 '눈뿔' 피해를 줘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소음기를 장착해 굉음을 내서 피해를 주기도 한다. 대부분 불법 구조변경이다.

불법 HID 전조등을 달면 맞은편 운전자들이 지나치게 강렬한 불빛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돼 야간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시야가 멀어진 후 다시 회복되는 시간도 일반 램프보다 2배 정도 더 걸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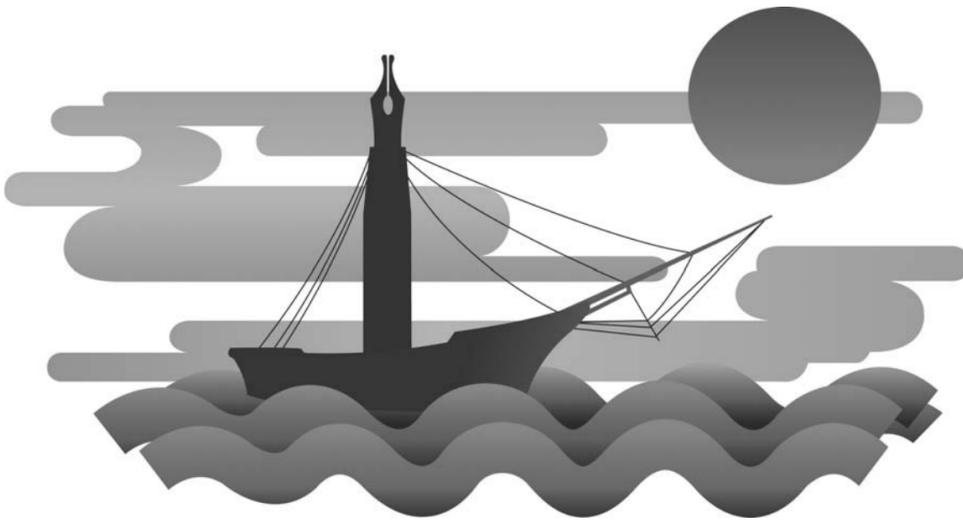
이는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자동차 튜닝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신청을 한 뒤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차량 튜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튜닝이 불법이라는 사실마저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대로 개조를 한다.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자신의 멋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로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장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